

울산농어촌공사, 물관리 현장 설명회

✎ 서정혜 기자 | ㉠ 승인 2026.04.28 00:00 | □ 12면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김상훈)는 본격적인 영농철과 홍수기를 앞두고 27일 지사 대회의실과 문죽저수지 등 지역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2026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공사 관계자, 운영대의원, 수리시설감시원, 지역 농업인 등 50명이 참여해 시설별 기능과 운영 현황, 안전관리·비상 대응 절차 등을 공유했다.

또 홍수기를 앞두고 지역 농업인과 합동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문죽저수지의 주요 설비 작동 상태와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조체계와 비상연락망도 함께 점검했다.

김상훈 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설명회와 사전점검을 지속해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서정혜 기자 sjh3783@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